

2000
8월

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만남

특집 : 교회의 여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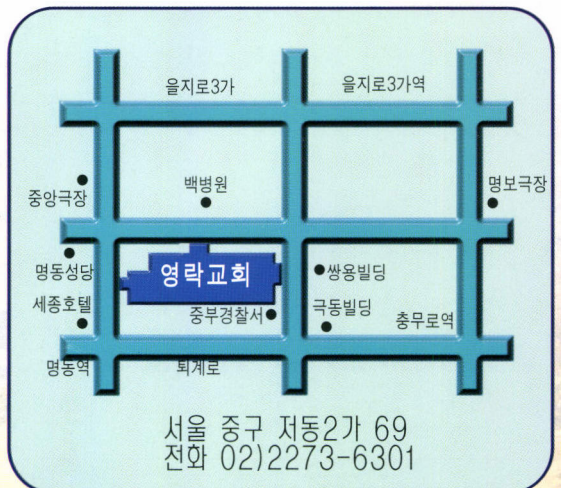


미국 입양아들과 그들의 부모 등 43명이 6월 11일 영락교회를 방문,
2부예배를 함께 드리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예배안내

| | | |
|------------|-----|----------------|
| 새벽기도회 | ... | 새벽 5:30~6:00 |
| 주일1부예배 | ... | 오전 7:00~8:15 |
| 주일2부예배 | ... | 오전 9:30~10:45 |
| 주일3부예배 | ... | 오전 11:30~12:45 |
| 주일4부예배 | ... | 오후 1:30~2:45 |
| 주일5부예배 | ... | 오후 3:00~4:15 |
| 주일저녁예배 | ... | 오후 5:00~6:15 |
| 국제예배 | ... | 오후 3:00~4:30 |
| 탁아부 | ... | 오전 9:30~2:30 |
| 유아1·2·3·4부 | ... | 오전 9:30~2:30 |
| 유치1·2·3·4부 | ... | 오전 9:30~2:30 |
| 유·초·소년1부예배 | ... | 오전 9:30~11:00 |
| 유·초·소년2부예배 | ... | 오전 11:30~13:00 |
| 사랑부예배 | ... | 오전 9:30~11:00 |
| 중등1부예배 | ... | 오전 9:30~11:00 |
| 중등2부예배 | ... | 오전 11:30~13:00 |
| 고등부예배 | ... | 오전 8:30~11:00 |
| 대학부예배 | ... | 오전 10:00~12:30 |
| 젊은이예배 | ... | 오후 1:00~ |
| 청년부성경공부 | ... | 오후 1:30~4:00 |
| 수요1부 기도회 | ... | 오전 10:30~11:30 |
| 수요2부 기도회 | ... | 오후 7:00~8:15 |
| 금요심야기도회 | ... | 오후 8:30~10:30 |

영락교회 위치



만남

표어 : 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통권 319호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

■ 4 대목표

- (1) 교육
- (2) 성도의 교제
- (3) 선교
- (4) 봉사

2000년 8월호 통권 319호

발행 / 2000.7.13

발행인겸 편집인 / 이철신

주간 / 김성배

논설위원 /

장진호, 나학진, 이영선

김윤곤, 정영근, 이현숙

발행처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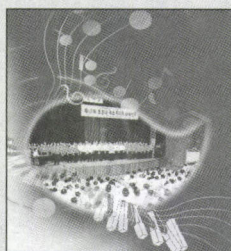
100-032 서울 중구 저동2가 69

전화/2273-6301 팩스/2267-9388

http://www.youngnak.net

편집디자인 / 부애드디자인(549-3033)

인쇄 / 우림문화사(859-4462)



■ 표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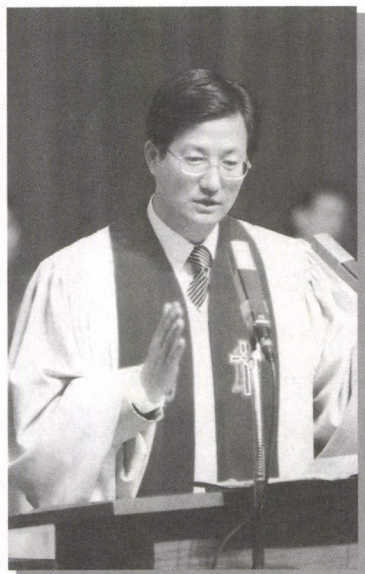
강원고등학교에서 순회 연주하는
호산나성가대

(사진 : 정경섭 집사)

| | |
|---------------------------------|----|
| 이달의 말씀 / 사랑 베풀기 - 이철신 | 2 |
| 월간논단 / 가롯 유다의 뉘우침 - 나학진 | 4 |
| 환경적 목사와 나 ④ / "역시 그러셨구나!" - 유병은 | 6 |
| 교회의 이름 / | |
| 2000부흥회 현황리에 | 8 |
|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 유치부 | 9 |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집중교육 - 유년부 | 10 |
| 교회교육의 큰 틀에서 영적 부흥을 - 소년부 | 12 |
| 한 영혼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로 - 대학부 | 14 |
| 청년 땀방울에 비친 민족 복음화 - 청년부 | 16 |
| "사할린의 핏줄을 찾아 선교하렵니다" - 유혜정 | 18 |
| 문화칼럼 / 청소년 문화, 그리고 교회 - 박승기 | 20 |
| 선교 / 북한 접경지역 비전트립 - 조의도 | 22 |
| 교회에서 바른국어 사용(16) - 장소원 | 25 |
| 달란트 / "메시지를 담은 영혼의 울림을 노래" | 26 |
| 야곱의 우물가 / 양대 명령의 완수 - 양지청 | 28 |
| 기독문학 이야기(2) - 김봉근 | 30 |
|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되십시오" - 임세영 | 32 |
| 취재기 / 2박 3일간의 평양 - 강민석 | 34 |
| 봉사 / 주일의 교회식당 - 진승호 | 38 |
| 교회소식 | 40 |

사랑 베풀기

(요 13장 34~35절)



이 철 신 담임목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식사가 끝난 그 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돌보고 관심돌려 그런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때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사랑의 대상이 지금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느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대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대방이 어떠한가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셨습니다. 패역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품은 사랑의 속성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 주

는 헌신의 속성이 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때에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준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사랑에 한번 빠지고 나면 시간이고 물질이고 다 내어 놓으시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 데,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놓으시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무제한으로 헌신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패역한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 헌신에 힘입어서 생명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낸 사진이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체험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여러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만 그 성찬식 역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상화하여

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느끼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그 헌신하는 사랑을 맛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사랑, 조건이 붙은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을 때에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

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사랑을 베풀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서,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세상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을 베풀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가롯유다의 뉘우침

-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



나 학 진 은퇴장로
(전 서울대 교수)

열 두 제자중의 한 사람인 가롯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은 삼십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밀고했었는데,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서는 뉘우쳐 은 삼십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은 삼십을 돌려주고 자살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돈에 대한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마태복음에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관심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면으로 검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지상(地上)의 천국으로 오해하여 유망한 높은 자리를 유다는 바라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는 예수를 암살하려는 음모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일부러 체포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쟁취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예수의 행동방향이 다름을 감지하고서는 실망하여 배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가롯유다가 열성당원 출신이었음이 입증되면 이러한 설명은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유를 규명하고 있지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눅 22:3)는 표현 이외에 어떤 설명도 성경에서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한 이유를 규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이러한 원인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다의 뉘우침을 문제삼으려는 것이다.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뉘우침이 참된 뉘우침이었을까? 정말로 참된 뉘우침이었다면 자살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위선보다는 자살이라는 결단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칼빈은 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다가 뉘우쳤다. 그러나 변화되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죄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유다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전적으로 차단되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는 죄를 불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義)를 사랑하게 된다.”

칼빈은 참된 회개와 유다의 회개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 유념하면서 청교도들은 ‘율법적 회개’ (legal repentance)와 ‘복음적 회개’ (evangelical repentance)를 구별했던 것이다.

전자는 율법의 위협적인 힘에 의한 회개인 반면에, 후자는 성령을 통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이다. 청교도였던 테일러(Thomas Taylo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다가 뉘우쳤지만 하나님에 의거한 슬픔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사역(事役)으로 믿음이 동반된다.”

참된 회개는 성령을 통해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교도들은 이것을 복음적 회개라고 칭하면서 율법적 회개와 구별하였으니, 유다의 뉘우침은 율법적 회개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된 회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의 역사이며, 믿음이 동반되고 죄를 불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참된 회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독일 바바리아(Bavaria)의 루드빅히(Ludwig) 공작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폭군적인 제후(諸侯)로서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대상이었다. 신하들에 대해 포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도 멸시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싫은 감정으로 대했다.

사냥에 나섰던 어느 날 숲 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자 일행을 기다리게 하고 그 예배당에 홀로 들어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3”이라는 숫자와 함께 글씨가 보이더니 숫자만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폭군이었던 루드빅히는 3일 후에 자기가 죽는 표식이라고 생각하고, 사후를 대비하는 생각으로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인자한 태도로 대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었지만 루드빅히의 신변에는 이상에 없었다.

“3”이라는 숫자는 3주를 뜻한다고 생각하고 가정과 나라를 치유하며 선정을 베풀었다. 3주 후에도 이상이 없자 3주가 3개월, 3개월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루드빅히는 변해간 것이다. 드디어 독일의 황제로 선출되어 루드빅히 대왕의 업적을 남긴 것이다. 율법적 회개가 복음적 회개로 변해간 하나의 예로 필자는 생각한다.

도덕성이 희석되어 죄의식이 실종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복음적 회개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만남**

“역시 그러셨구나!”



유 병 은 은퇴 안수집사

서울 본토박이인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8·15해방 후 나의 직장인 KBS에서였다. 종교 방송시간에 설교하러 오시는 한목사님은 너무 겸손하셨고, 방송내용은 은혜가 풍성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1917년에 태어나 동리교회에서 교회학교 반사로 봉사하던 무렵 너무나 겸손하시며 은혜로운 말씀에 한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어 결국 가족과 함께 교적을 영락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부터 한목사님께서 방송하러 오실 때는 방송하러 오시는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현관에 나가 나의 집무실로 안내를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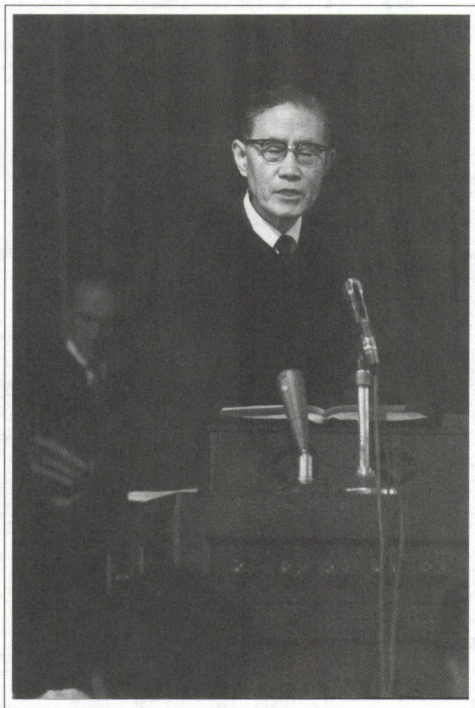
한목사님께서서는 국내방송의 종교시간과 국제방송의 ‘대북방송’ 등 자주 방송설교를 하실 기회가 늘어났다. 특히 KBS의 전파는 강력한 공중파였기에 한목사님의 방송전도의 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종교 방송시간에 설교하신 수 십 년간의 한목사님의 말씀은 국내는 물론, 이북동포 및 전세계에서 수많은 신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목사님께서서는 나의 집무실에서 녹음실 준비를 기다리시는 동안 나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첫째는 목사님이 KBS에 오실 때 “현관에서 아무도 마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KBS 현관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한목사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드리며, 존경의 뜻을 표시하고자 자동차 문을 열어 드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목사님은 “유집사도 현관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으나, “목사님, 자기교회 당회장님이 제 직장에 오시는데, 집사도 마중을 못나갑니까”라는 말씀을 드려 나만 예외가 됐다. 한목사님은 일상생활에서 겸손을 철저히 실천하신 분으로 누구도 목사님의 겸손을 따라가지 못했다.

두 번째 당부는 큰 목소리로 분명히 또박또박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절대로 방송 사례금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한 후, 방송 사례금을 담당 여직원을 불러

“한경직 목사님은 방송 사례금을 안 받으시니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방송 사례금 담당 여직원이 ‘착각’을 하여 국고에서 지불되는 방송 사례금을 한목사님께 드리려고 했다. 깜짝 놀라신 한목사님은 나에게 “여보 유집사, 이거 어찌된 일이오”라고 꾸중을 하셨다. 내가 어리둥절해 하는 동안, 여직원이 한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의 착각으로 국고에 한목사님의 방송 사례금을 청구했으니, 그냥 받으세요.”라며 “일단 청구한 돈을 반환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고 애원을 했으나, 한목사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잠시 후 한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유집사, 당신이 영수증에 대리 사인을 해주고 사무적으로 완결한 후 그 돈을 동전으로 바꾸어서 좀 수고가 되겠는데 남산 방송국에서 종로 통으로 나가 동대문까지 걸어가면 많은 걸인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던 방송 사례금 담당 여직원이 “한목사님, 다른 목사님에게는 모두 방송 사례금을 다 드리



한경직목사가 1950년대 부터 방송 설교를 시작하자 영락교회 강단 마이크에는 음향장치가 마련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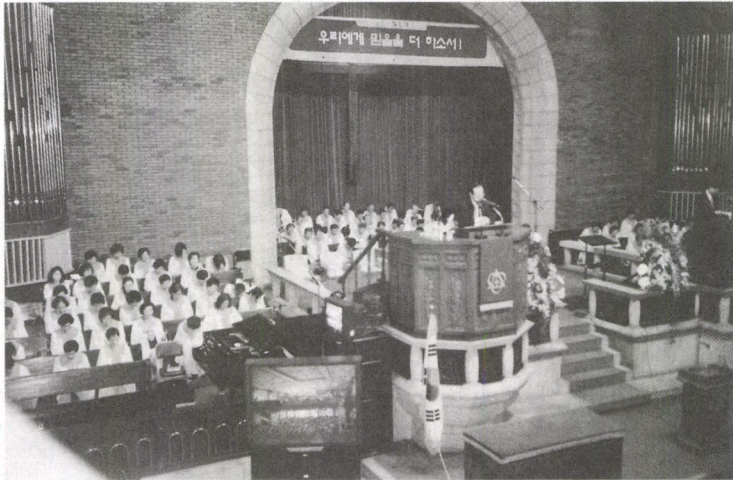
고 있는데 왜 한목사님께서서는 안 받으십니까”라고 반문을 했으나 한목사님께서는 무반응이셨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차를 타지 않고 한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돈을 동전으로 바꾸어 종로 통으로 걸어 나갔다. 가는 도중에 걸인이 눈에 많이 띄었고, 나는 그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면서 동대문까지를 왕복했다. 한목사님의 말씀을 순종

하는 뜻에서 책임을 끝내고 버스 편으로 집에 돌아가니 마음이 홀가분했으며, 그날 따라 저녁식사가 맛이 있었다.

이로써 나는 한목사님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년에도 여러 번 외국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신 한목사님은 공항에서 뵈게 되면 늘 아무 짐도 없이 빈손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신문기사에서 ‘저금통장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이 난 것을 보고 “역시 그러셨구나”라는 감탄과 함께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한남**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 2000부흥회 성황리에 -



새벽예배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눅 19:1~10), 오전예배에는 ‘청지기 공부(2)’ (마 25:14~30, 막 12:41~44), 저녁예배에는 ‘정직한 믿음’ (눅 2:36~38), 그리고 넷째 날 새벽예배에는 ‘바람직한 성도(일꾼)’ (행 18:24~28), 오전예배에는 ‘청지기 공부(3)’ (살후 2:13~14, 롬 16:3~4), 저녁예배에는 ‘내가 만난 예수’ (눅 5:1~11) 등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3~24)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주제로 영락교회 본당, 베델, 선교관에서 7월 2일(주일)부터 7월 5일(목)까지 김창인(광성교회 당회장, 증경 총회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열렸다. 부흥회는 4일동안 새벽(6시), 오전(10시 30분), 저녁(7시)예배를 하루 3차례씩, 그리고 응답받는기도회를 드렸다.

첫째 날 저녁예배에는 ‘질 좋은 믿음’ (왕하 4:1~7), 둘째 날 새벽기도회에는 ‘은혜위에 은혜’ (막 5:25~34), 오전예배에는 ‘청지기 공부(1)’, 저녁예배에는 ‘건강한 믿음’ (막 10:46~52)과 셋째 날

의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오후에는 기도의 역군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하는 응답받는 기도회(오후 2시)는 베델에서 열렸다.

4일동안 열린 부흥회를 위해 제1식당을 개방하여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했으며, 숙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50주년기념관 2층(여자), 1층 사랑부실(남자)을 숙소로 제공하여 어르신들과 집이 멀어서 가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4일동안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눈물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와 나라는 분명히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안광** (홍보출판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심어 주립니다”



양 선 영 전도사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락교회 유치부입니다. 지금부터 유치부에서 준비한 2000년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으로 살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 (골 1:27)입니다. 이러한 주제 아래 진행하는 여름성경학교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 실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신앙의 성장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인격형성을 위해 놀이를 통해 훈련하고, 셋째 어린이와 교사 상호간에 친밀한 사귀를 가져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매년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서학습은 우리의 목

자이신 소망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알리고,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야제와 연결하여 3과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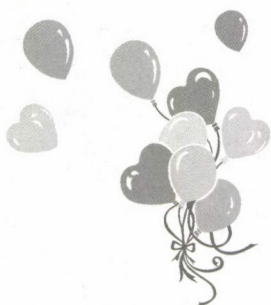
특별학습은 복음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각색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며,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물놀이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불과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신체를 많이 움직여,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캠프화이어는 어린이들의 영성 계발과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임을 알게 합니다.

연령에 맞는 전인교육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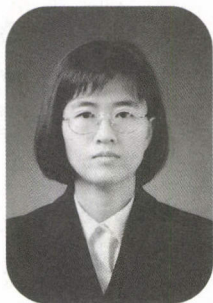
우리 유치부는 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치부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심리, 정서, 사회, 인지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교사들의 수고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를 맺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집중교육



유년부



김희정 전도사

“저 오늘 여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앞으로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몇 주전 우리교회 유년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유년부 어린이 글의 일부이다. 이는 ‘컴퓨터 세대’, ‘N세대’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이 바로 그 세대 안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한 예이다. 어린이들의 생활은 이렇게 컴퓨터, 전자오락, 비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 또는 첨단매체들에 익숙해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맞이한 새 천년에 대한 전망들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위기의 시기’라고 인식한다. 어린 영혼들을 맡고 있는 교회학교가 대응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성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올해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실시하게 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야외학습을 하는 유년부

첫째, 어린이들은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많은 캠프를 경험하는데, 여름성경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이 다룰 수 없는 어린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만지는 교육이다. 따라서 여름성경학교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지양하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집중적으로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확실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은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가지로 자신과 이 혼탁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

도록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의지에 맞추어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포기해 가는 과정이다. 여름성경학교는 성경학교 이후에 연계되는 어린이들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성숙하고 전인적인 모습으로 지속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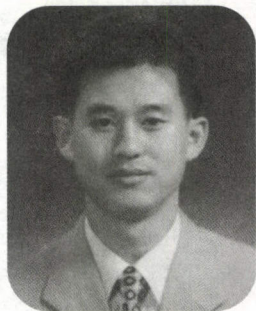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준비로 애쓰는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것이다.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새 천년의 성경학교. “자! 이제 떠나 볼까요?” **만남**

교회교육의 큰 틀에서 영적부흥을...



소년부



김 반 석 전도사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거시적이어서 충분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한 연구결과 및 이에 따른 모범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으나, 지면이 할애하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목이 주는 것처럼 '새 천년의 여름성경학교의 방향'에 대하여 깊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소견을 접고자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교회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형태는 주일학교이며, 주일학교는 매 주일에 교회에서 열리는 학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회학교는 일정기간 성경학교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올려왔다. 성경학교는 교회학교 각부서에서 부서의 해당 학생들의 방학에 맞추어서 열리는 학교이다. 이 성경학교에는 여름성경학교가

있고, 겨울성경학교가 있다. 여름 성경학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성경학교는 요즘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는 한국기독교역사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교육적 효과는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새 천년의 여름성경학교의 방향'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과거의 성경학교의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혁시키는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려온 성경학교 전통의 효과적인 면을 보다 살려서, 성경학교의 특성들을 더욱 발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기의 시발점이라 할수 있는 2000년에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교육의 방향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교회학교가 운영되

는 성경학교는 그 부서에 특성에 맞추어서 편성된다. 아동부는 성경학교, 중고등부는 수련회 형식으로, 대학부와 청년부는 수련회와 선교활동 등으로 성경학교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중고등부와 대학부나 청년부가 수련회와 선교활동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아동부보다 한 단계 위인 상급부서의 형편에 맞게 하는 성경학교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성경학교의 한 형태라고 해도 그 주된 의미상 틀린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내용에서 만큼은 편의상 수련회나 선교활동도 성경학교라고 하는 큰 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론 다른 차원으로 취급할때에는 그 독특한 특성상 다르게 분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이 글에서 논거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바는 교회학교라는 큰 준거틀에서, 교회학교와 성경학교간의 상호연관성을

견지하여 성경학교를 기획운영하고, 지금껏 해오던 한시적인 성경학교의 성격상 그해 그해의 단절된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한해의 잔치로만 생각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근시안적인 운영이 아니라, 먼 안목을 가지고 매해마다 내용상, 교육적 수준상의 상호연결고리를 갖고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적으로 장기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면서 운영하는 혜안을 가지게 하고자 함이다.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교회학교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름(겨울)성경학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교회의 실정과 운영체계에 맞게, 그리고 대상인 학생들의 상황, 교사들의 자질 등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 여름성경학교의 내용의 큰 틀은 하나님의 말씀공부와 어린이 성도들간의 친교, 교회학교 시절의 놀이문화와 결코 잊을수 없는 추억, 영적부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평소의 주일학교교육에서 소홀히 한 점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교육등을 고려해서 기획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게다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생활속에서 이웃과의 친교, 성도들간의 친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갖게 할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주된 내용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여름성경학교의 운영정신을 살려 새천년, 새시대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1~6학년까지의 유년주일학교라는 범주안에서, 멀게는 모든 교육부서를 포함한 교회학교 전체의 큰 틀에서 내용과 수준들을 연결하여 기획함으로써 6년 내지는 12년, 15년, 그 이상을 겨냥하여 운영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커다란 교육적 틀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진일보하는 교육적 흐름을 갖고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전체적인 윤곽은 각 교회교육부가 설정하고, 각 부서의 독립적인 면을 살리는 유연성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총괄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새천년 성경학교의 방향으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경학교를 기획 운영하는 것이, 현재 한국기독교의 교회의 여건과 신앙의 수준, 교회학교의 양태를 생각해볼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여름성경학교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겨울성경학교와의 상호보완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여름성경학교는 여름성경학교대로, 겨울성경학교는 겨울

성경학교대로 그 특수성을 살려 각기 나름대로의 연계성을 가진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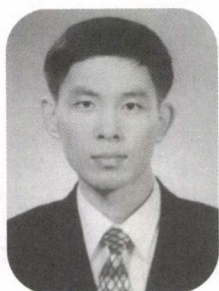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이므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포함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를 포함한 교회교육기관 전체에 걸쳐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따라 교육의 일관성과 그 흐름을 유지적용함으로써 성경학교가 한 인격과 공동체를 변화시켜나가는데 집중된 영향력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이 시사하는 것처럼, 기독교 1세기가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정착해온 한국기독교의 교회학교가 새시대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여를 성경학교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아가 기독교교육이 성경학교라는 특수한 프로그램 학교를 통해 교회학교의 주일학교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충만하길 기도한다. **만남**

한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로

대 학 부



이 재 환 전도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적 프로그램 (시 148:1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목표다
(사 43:21). 교회의 모든 프
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
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이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어
야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은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떤 효과를 이루었는지 실
패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엄격한 분별력을 가
져야 할 것이다.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마
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욕망과 자랑이 끼어 들
우려가 있다.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
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것
은 하나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다(롬
12:1).

영혼의 잔치(잠 27:23, 요 10:10)

여름 수련회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프
그램보다 효과적이고, 집중력이 강한 시간이다. 어
떤 사람은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한 번도 읽지 못하
지만, 마음 먹고 읽으면 4박 5일 동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3~4일 집중된 여름 프
로그램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
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일치
된 방향성을 가지는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준비되
느냐에 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합리
화하려고 하기보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풍성함의 비
밀을 깨닫는 영혼의 잔치가 되도록 해야겠다.

회복이 있는 쉼터(마 11:28)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
다. 교회 프로그램은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안식
과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왜곡
된 가치관과 삶의 정황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
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내면적인 상처와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있다. 여름
프로그램이 이러한 영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
고, 그들이 더욱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도우며, 하나
님이 주신 삶이 아름다움을 체험하도록 돕는 쉼터
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 수준에 있어서 도약의 전환점 (고후 5:17, 히 12:1-2)

삶의 일상을 떠난 수련회는 우리의 삶을 점점할



수 있는 좋은 돌아봄의 시간이 된다. 부끄러운 삶의 영역들, 규모 없는 삶의 스타일, 방향(비전)없는 힘겨운 수고들, 예수님이 빠져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등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바꾸고, 고치고, 회개해야 할 문제들을 기도 제목 삼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지만 한 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번 수련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도약의 전환점이 되길 기도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파종의 시간(126:5~6)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내일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지금 그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에 교회의 내일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름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것이 한 날 교회의 한 철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

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새로운 세대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헌신자들의 눈물과 땀의 열매(시 110:3)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요구된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드러나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귀하고, 남몰래 기도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도 귀하다.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여름 수련회의 또 하나의 기쁨이요 감격이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른다. 그들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올 여름 프로그램도 이러한 헌신된 분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잠 16:9)

2000년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헌신하여야 하겠지만, 다른 한 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주를 향한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히려 힘을 얻고, 미소를 지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여름을 맞자. **만남**



청년 땀방울에 비친 민족 복음화

청년부



박준호 전도사

지금은 밤10시다. 조금 전까지 여수지역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던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제24차 하기선 교봉사활동을 위한 워크숍이 한참 진행중이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이들이 약 두달에 걸친 저녁시간을 오직 여수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이렇게 바보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1년에 한번뿐인 황금같은 휴가! 얼마나 기다리던 휴가인가?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을 나인데, 휴가를 목숨걸고(?) 조절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참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들은 참으로 바보같은 천재들이다. 이들은 진짜 땀과 헌신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다.

작년 하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또 강원도에 가서 그들의 봉사현장을 경험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하기선교는 청년부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다. 실제로 23년 동안의 하기선교는 전국의 거의 모든 도를 순회했다고 볼 수 있다.

치밀한 조직과 철저한 답사를 통한 준비, 기도와 강의를 통한 영적인 무장,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전문인의 확보,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이 청년들의 불타는 열정과 순수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야말로 영락의 자랑이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초석인 것이다.

실제로 청년부의 하기선교는 많은 교회의 농어촌 선교의 모델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던 70년대, 80년대에 하기선교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走馬加鞭이라했던가? 온 세계가 새천년을 즈음하여 변화와 개혁을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의 하선도 한층 더 실질적이고, 향상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라면 충분하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던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구호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 청년부에는 10개의 반이 있다. 이 모든 반들이 1개의 도가 완전히 자립할때까지 입양해야 한다.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도까지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농어촌도 선교사의 개념이 필요하다. 평신도뿐 아니라 각 반에서 농촌목회자를 파송해야 한다. 영락청년부

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David M. Howard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농촌지역선교는 그 지역의 교회가 그 지역민들의 삶의 중심에 설수 있게 도울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구제보다는 장기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청년들이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의 구호를 외칠때이다. 외칠뿐만 아니라 일어나 나서야 한다. 이제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방향이 요구되는 때이다.

청년들이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복음화는 없다.

청년들이여!

오늘도 그대들이 흘린 땀방울속에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열쇠를 찾는다. **만남**

“오랜만에 마을유지들이 교회에 둘러앉아 감사와
협조의 말이 오가던 유지간담회, 어린아이, 학생, 아
기업은 아주머니, 쌍지팡이 짚고 나오신 할머니 할아
버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찌르르 찌르르 하며 돌
아가는 영화에 정신을 놓고 보시다가 어느 대목인가는
눈물을 닦으시던 영화상영, 머리에 털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번씩 오고 싶어했던 마용봉사, 아들, 딸 같은
봉사단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그리스도를 뜨겁게 전
하던 축회전도, 인형극...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던 그들의 발을 교회로 옮기게 했다.”
- 낙도에서 온 편지 -

“지금까지 도회지의 여러교회들의 봉사활동을 지켜
본 나로서는 영락교회의 봉사활동에도 별 기대를 갖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봉사가 형식적인 감이 있었고, 전
문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무
관심은 목포역전 도착에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
며 바뀌기 시작했다. ... 특히 30여명의 적지 않은 대
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서로 협조하며 맡은바 임무에 충
신했으며, 힘들어 하는 대원을 북돋아주고 열싸안고 기
도해주는 광경을 여러번 목도하게 되었다. ...연로하신
지도위원들로부터 봉사대원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게
을리하지 않았고, 대원들의 사랑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흘린 눈물은 꾸밈이 아니었다....나는 봉사
활동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있어서 기도의 필
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성도들에 대하여는 사랑
과 봉사와 헌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 어느 현지 목회자가 보내온 편지 중 -

“하선기간동안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다. 잠도 3-
4시간밖에 못자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기쁨과 줄
거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드린다는 부딪힘과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
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살때와는 분명 다른 감격을 느낄수 있었다. “
- 하선후 한 자매의 고백 -





“사할린의 핏줄을 찾아 선교하렵니다”

- 뮤지컬 ‘기쁜소식’ 공연을 통하여 -

유혜정
문화선교부(CCW) 위트니스

남아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선교

일제 강점 하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강제로 조국의 땅을 떠나 낯설고 추운 땅, 사할린에서 일생을 바친 우리의 핏줄들을 찾아가고자 한다. 사할린은 러시아 공화국에 속하는 일본 정북방에 위치한 섬이다. 행정중심지는 유주노 사할린스크, 인구는 70여만명, 면적은 우리국토의 절반 정도이며,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약 4만 5천명 가량이다. 일제 강점 하에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죄수처럼 혹사당하며 희생되어 갔지만, 일본패망 후는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일본은 그들을 언땅에 버려 두었고, 조국은 그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조차 두지 못했다. 이제 한인 1세대들은 생존자가 많지 않다. 다행히 정부와 일본의 후원으로 1세대들을 영주 귀국시켜 생활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한 번의 생이별의 아픔을 치르고 있다. 사할린에 남아 있어야 하는 2, 3세대들, 그들은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러시아인’도 아니다. 생김새는 한인이지만 문화와 언어는 러시아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국은 뿌리와 같은 존재이며 조국이다.

전하는 선교

러시아 및 사할린 주는 러시아 정교회가 토착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1년에 한, 두 번 연중 행사처럼 교회를 찾을 뿐이다. 70여년동안 지배하였던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1991년 ‘개방’ 되면서 개신교가 들어갔다. 현재 사할린에는 한국의 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6개에 이르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사할린 교회가 바로 서기까지 러시아 정교회의 텃새에 밀리기도 했다. 그리고 오랜 종교적 습관 때문에 선교사님이 세운 개신교회로 나오기를 꺼려하여 교회의 성장과 전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본국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현지의 개척교회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러시아는 지금, 갑작스러운 개방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등 총체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요 ‘복음’이다.

바울의 삶을 통한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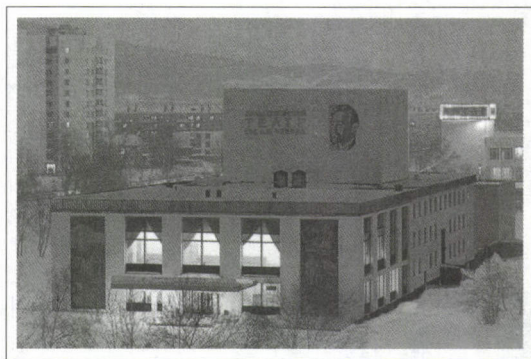
바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뮤지컬팀 '위트니스'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지극히 낮은 자로서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쓰여진 창작 뮤지컬 <기쁜 소식>은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타락한 '이방'의 여러 모습들을 배경으로 바울과 동역한 인물들이 출연한다. 이를 위해서 19곡의 새로운 노래와 춤이 탄생했으며, 공연시간은 약 1시간30분이며 출연진은 배우 및 스텝 포함하여 30여명이다.

공연 8월 18일(금)~19일(토), 공연장소는 사할린 주 행정수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의<체홉 기념 극장>이다. 21일(월)에는 한인 1세대의 눈물과 고통이 얹혀 있는 <꼬르샤꼬프 극장>에서 공연한다. 사할린 남쪽에 위치한 작은 항구도시, 꼬르샤꼬프를 통하여 한인 1세대가 사할린 땅을 밟았으며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가기 위해 모인 곳이다. 선교 공연의 주관은 영락교회 선교부/ 문화선교부이며, 현지 초청은 <사할린교회>이며 후원은 <사할린 선교사협의회>와 <사할린 주 한인회>이다.

먼저, 비전을 품고 이루어진 선교

1997년, 한 집사님의 '찬양 선교'를 통해서 사할린을 찾았고, 꼭 다시 사할린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한다. 이후에 뮤지컬 팀이 창단되었고 그 집사님은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위트니스>에서 헌신하면서 사할린 선교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땀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친구이자 동역자인 다른 집사님의 적극적인 후원도 함께 하게 되었다. <위트니스>는 사할린이



CCW회원들이 공연할 극장

란 곳을 알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였고 올해부터는 러시아어 공부도 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다. 성공적인 선교공연을 위해서, 능력 있는 선교 공연을 위해서 <위트니스>는 매주 5회, 오후 7시부터 3시간동안 연기와 춤, 노래를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위트니스>라는 이름답게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땀과 시간을 바치고 있다. 또한 선교부의 적극적인 후원과 당회의 인준으로 박송기 목사님과 이명호 장로님의 인솔 하에 사할린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다너을 사할린 단기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위트니스의 <기쁜소식> 이후의 선교

한인1세에게는 조국의 관심을 통해서 위로가 될 것이며, 2, 3세대에게는 선교의 사명감에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조국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과 한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격려와 용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선교에 냉담했던 러시아인들에게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초석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만남**

청소년 문화, 그리고 교회



곽 승 기 목사
(월로우크릭교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얼마 전 교회의 배려로 미국에서 열린 '제7차 예배갱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약 40여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부흥하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소개가 되어 잘 알려진 시카고 월로우크릭교회(빌 하이벨즈 목사), LA 새들백교회(릭 위랜 목사) 그리고 갈보리교회(척 스미스 목사)와 수정교회(로버트 솔러 목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 그리고 LA근교의 흑인교회(West Engels) 등 최근 미국 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돌아보고 실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그 미국교회를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그들은 참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교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교회에 갔을 때, 그 예배당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평일에는 학교로 쓰고 주말에는 교회건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교회의 소개자는 "우리는 교회 건축할 돈이 생기면 청소년

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밝히면서 그것이 중요한 교회정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금번 여행중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풀러신학교와 바이올라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올라신학교는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곳이라 그런지 낯선 느낌보다는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소개 후에 가이드를 맡은 분이 아주 특별한 손님 한분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는 한국인 1.5세대로서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신학을 전공한 젊은 30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의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한국인 2세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도 YFC(Youth For Christ)에 몸담고 있으면서 미국의 청소년들과 한국인 2세들을 위한 특수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나눠주신 자료를 받아보며, 또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청소년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들이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통계를 낸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1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린 것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미국의 청소년 중에 92%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80%가 결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현재 청소년의 12%만이 지역교회의 교적부에 그들이 이름이 올려져 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1,439명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할 것이다. 2,795명의 여자 아이들이 임신할 것이다. 15,000의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마약에 손을 댈 것이다. 3,506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할 것이다. 16명의 아이들이 권총으로 죽게 될 것이다. 3,000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의 이혼을 보게 될 것이다. 2시간에 1명씩 청소년들이 살해되고, 4분마다 1명씩은 알콜에, 7분마다 1명씩은 마약에 관계된 범죄로 체포되고 있다

최근 기독교 조사기관에 따르면 교회 청소년의 80%가 졸업후에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저는 위의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비록 미국교회와 미국사회의 이야기였지만 미국의 현재 모습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이라 볼 수 있기에 좀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참으로 착잡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공격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있지 않는다면 경쟁사회의 구도속에 치이고 입시제도에 지쳐 상처난 그 청소년들의 매마르고 공허한 심령속에 악한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며 중국에는 이땅의 청소년들이 그 사

탄앞에 무릎꿇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제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사탄이 대중문화를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그 해악을 밝히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냉철하면서도 예리한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이 성경위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마다 7월초에 우리 문화선교부(CCW)에 속한 문화비평팀이 보고하는 “저동문화 교실, 대중가요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그 동안 이 자료집은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정부산하 청소년 보호 기관에서 정책을 수립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한국 교회앞에 문화선교를 통한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선교정책을 한발 앞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차 교회의 주된 헌신자들로 일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남**

북한 접경지역 비전트립



조 의 도 권사

북녘 동포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시급한 이때 제4기 북한선교학교 수료자 중심으로 북한 접경 지역 답사를 통하여 북한선교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사역에 일익을

감당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19명의 대원은 하충엽 지도목사님과 이승준 목사님을 모시고 연길, 백두산, 도문, 심양, 단둥 등을 비전 트립을 했다.

제1일(6월 12일) 김포-심양-연길

6월 12일. 총 19명이 3개조로 편성되어 12시 55분에 김포를 출발했다.

첫 기착지인 심양은 옛 봉천이라는 우리 민족사에 잊을 수 없는 일제시기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또한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동관교회의 방문은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방문지였다.

오후 3시 45분. 25인승 버스편으로 영국 로스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동관교회를 방문하여 로스선교사의 열정으로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어로 최초 번역 되어 한국에 전달되는 복음 전과 과정의 사역을 접할 수 있었다.

오후 7시 50분. 비행기에 탑승 연길공항에 저녁 9시 10분 도착하여 공항에서 15분 거리인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연길시는 길림성에 속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소재지로 연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우리말 사용이 가능하며 한글 간판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인구 36만명, 면적 390km²,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으며, 조선족 대학인 연변대학, 연변일보사, 연변 TV방송국 등이 있다.

저녁 식사 후 밤 10시 15분. 다음날 일정의 숙지를 위해 목사님 방에서 모임을 갖는 중 특별한 만남으로 탈북자 선교사역을 하고있는 ○○○전도사님의 사역보고를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느 탈북자가 탈북후 신변에 위협과 거처할 곳이 없어 유랑할 때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하게된 감사의 편지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적시는 감격적인 모습은 선교사역의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유를 찾는 극적인 과정의 힘겨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제2일(6월 13일) 연길-연길교회-백두산

6시 기상. 호텔식후 연길교회에서 아침 경건회를 드리고 버스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여행길을 재촉했다. 5시간 30분간의 이동거리에도 설레임으로 피곤함을 뒤로하고 백두산에 도착하여 입장권을



두만강 건너 북한산하가 보이는 접경에서

산후 관문을 통과 하였으나 또다시 20여분간 질주하여 비로소 입구에 도착 그때야 모습을 보이는 백두산의 장대함에 모두 기가 질린 듯 했다.

우리 일행은 지프에 분승하여 굽이치는 산등성을 돌아 아직도 흰눈을 벗어 버리지 못한 계곡을 통과하여 천지밑에 도착하였을 때 흰눈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두견화가 일행을 반기고 있을 때 비 바람과 안개는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게 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한 후 가파른 분화구 코스를 더 이상 오를데가 없어 고개를 들어 천지를 찾았으나 시야에 안개만 자욱할 뿐이었다.

“북녘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저 북녘땅의 내동포 형제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하소서.”

이때, “야! 천지가 보인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탄성에 놀라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마치가마솔 뚜껑을 열면 김이 위로 빠져나가듯 안개가 걷히며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천지의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손에 손을 잡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

과 북녘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통일의 노래로 우리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후 하산하니 일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맑고 청정한 일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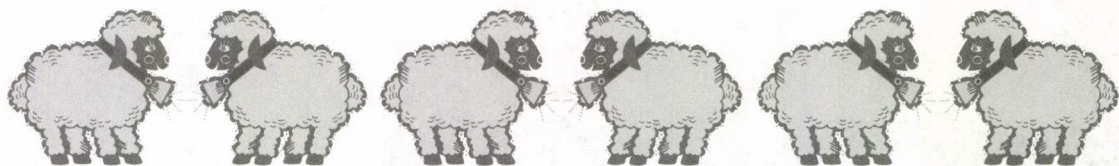
애통합과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감사드리며 민족의 정신이 서린 백두산 자락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용정을 거쳐 북한 최 접경지인 도문으로 향했다.

제3일(6월 14일) 백두산-용정, 대성중학-도문

용정은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며, 일제 민족사의 발자취와 겨레의 숨결을 느끼며 운동주 시비등 역사 기록물등을 둘러 본후 해란강을 거쳐 도문으로 향했다.

두만강변에서 바라본 북녘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증산정책으로 온 산야를 계단밭으로 개간하여 황폐화된 모습이 처절한 식량난의 단면을 입증해주는 가슴아픈 일이었다.

황폐한 북녘의 모습을 두만강 강변을 따라 도문에 도착했다. 도문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을 바라보는 이 지역은 북한 기관원들이 상당수 상주해 있으며 ‘꽃제비’라 불리는 북한 여성들이 달러 벌이에 착취 당하고 있는 곳이라는 증언을 들었다. 도문 다리를 사이에두고 두만강 건너 지척에 보이는 북한의 풍경은 보는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일행은 복녘땅을 뒤로하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를 접할 수 있는 단동을 여행하기 위해 오후 8시 35분 CJ 6602편에 탑승 했다.

제4일(6월 15일) 심양-단동

심양에서 1박하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다. 아침 경건회후 기차편으로 4시간 20분을 소요하여 단동에 도착하여 종교국에서 승인받은 삼자교회인 칠도교회에서 도착 기도회를 가졌다.

단동은 심양에서 205Km, 북한 신의주 및 위화도가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6.25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끊긴 압록강 철교가 분단의 비극을 말해 주고 있는 듯 하였다. 인구 234만(도시 69만) 조선족은 6천여명 정도인 이지역은 도문 지역과 같이 북한과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선교 전략의 거점지로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칠도교회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북한 신의주 어린이에게 보내는 빵공장을 방문하여 빵굽는 현장을 답사했다. 생산된 빵들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유출을 방지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가슴아픈 복녘의 현실을 또 한번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압록강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신의주 접경을 왕복하며 지척에 고향땅을 밟을 수 없음이 한스럽기만 하였다. 또한 오래전 부터 잊어버린 신의주 제지공장의 굴뚝이 시야에 들어와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암흑같은 복녘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

“주님! 저들의 영이 저와같이 암흑이라 저들이

죽어가고 있어오니 어서빨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주시옵소서.”

제5일(6월 16일) 단동-태평땀-심양-서탑교회

아침에 접경지인 태평땀으로 향했다. 태평땀의 다리위에서 복녘땅 의주를 내려다보며 이땅에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기념 촬영 후, 돌아오는 길에 호산성에 잠시 발길을 멈췄다. 이곳 호산성은 만리장성의 기점이 되는 지역으로서 북측과도 접경을 이루는 곳이었다. 폭1미터의 작은 도랑으로 형성된 북한과의 경계선을 답사중 북한 내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바로 지척에서 만날 수 있었으나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쉬움속에 이번 비전 trip 중 마지막 코스인 단동을 뒤로하고 오후3시 30분 열차에 탑승하여 심양으로 향했다. 심양에 도착후 마지막으로 서탑교회를 마지막 방문했다.

제6일(6월 17일) 심양-서울

아침 CJ 681편으로 오전 9시 심양을 출발하여 11시 45분 김포공항에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비전트립을 마칠 수 있었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6월 13일 남북에 정상 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에 통일과 복녘땅의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수료식을 6월 25일 바로 6.25의 50주년을 맞아 제4기 북한선교학교가 수료하게되어 매우 의미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만남**

명사문 남용의 문제점

- 교회에서의 바른 국어사용(16) -

장 소 원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방송통신대 교수)

우리는 요즘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야만 했으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굳이 어떤 정보를 구하러 장소의 이동을 하는 것이 불필요해졌다.

외국에서 출판된 책도 신간은 물론, 중고책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 인터넷이라는 사실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홈페이지를 꾸며놓았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영락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체계적으로 잘 꾸며진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성격공부반을 안내해주는 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어성경읽기반>의 '참가대상 및 목적'을 안내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외국어 성경 읽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참가하며, 해당 외국어권 지역의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과정”

너무나 간략한 표현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조금 손보아 다음과 같이 고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로 성경 읽는 일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얼핏 보아서 원문과 수정된 구문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세히 뜯어본다면 지나친 명사문의 구성을 지양하면서 부드러운 구문의 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공문서와 같은 딱딱한 분위기의 글을 쓸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명사문으로 구성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 명사의 나열만으로 구문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명사들의 나열이 지나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사 '의'를 남용하게 되고, 그 결과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교회 홈페이지의 다른 곳에서 “드디어 사회봉사부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군요...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축하합니다’와 ‘감사합니다’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선교의) 비전’은 어떤 경우에도 ‘비전’이지 ‘비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남**

“메시지를 담은 영혼의 울림을 노래”

메시지를 담은 영혼의 울림

한경직 목사 장례식이 열렸던 지난 4월 24일. 엄숙히 진행된 장례행사 중 사랑과 안타까움이 묻어난 성도들의 심정을 담고 본 당에 올려 퍼진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있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날 조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주목을 받으며 조가를 부른 이는 다름 아닌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 테너 조성환 집사.

평소 “메시지를 담은 영혼의 울림을 노래” 한다는 것이 그의 모토.

개인 약력

현재 장신대 교회음악과(성악)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 그가 영락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6년, 갈보리 성가대 지휘자로 오게 되면서부터 이다. 그때 그의 나이 30세가 채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는 가족과 함께 2년 뒤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대 리트 오라토리오과와 오페라과를 거쳐 92년 서독 국영

방송(WDR) 합창단에 단원으로 들어간다.

3년 뒤인 1995년 독일 튀링엔 주립극장 솔로가수로 들어가기까지 그는 알프레도 크라우스 국제 성악콩쿨 모차르트상을 비롯, 비엔나 국제 성악콩쿨 등에 입상, 우수한 기량을 인정받는다. 독일 튀링엔 주립극장 솔로가수로 들어간 그는 4년간 활동 끝에 1999년 귀국, 갈보리 성가대

한경직 원로목사님 장례예배에서 조가를 부른 조성환 집사

지휘를 맡으며 장신대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한다.

친가, 외가 3대째로 내려오는 든든한 신앙을 배경으로 마산에서 자라난 조성환 집사.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할 아이로 점 찍혀 자라났다. 마산 남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아버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두드리며 음악과 자연스레 어울려 자라났다. 듣고 부르고 느끼고, 그런 일들이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일까? 목회자가 된 형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음악교수가 된 그 말고도 그의 남동생 역시 아버님의 뒤를 이어 중학교 음악선생님이 되어 있다. 모두

어릴 적 음표가 귀에 가장 익숙한 소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간혹 조성환 집사는 평탄한 삶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 길을 직접 걸어와야 했던 그에겐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이었다.

고달팠던 유학시절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부모님을 기억한다.

다른 도움을 기대 할 수 없었던 그는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수없이 무대 연주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었다. 더욱이 그 역시 보장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때 그는 가슴 사무치도록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배웠다.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부인의 격려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 바위에 올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그는 기억했다.

아버님의 기도. 어머님의 큰 사랑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준, 아니 앞으로도 지탱해 줄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유학 시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절반의 봉급을 받고 기도 끝에 간 독일, 그리고 귀국한 지금 그는 그곳에서 겪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바하의 고향.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중심지. 그 무대를 통해 그는 목사의 그 어떤 역사적 이해와 신의 섭리, 그로 인한 영혼의 깊은 메시지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귀국 후 마련된 무대들은 그가

걸어온 지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더욱 확실히 인정하게 했다.

이제 그는 노래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메시지, 이를 노래에 담아 영혼의 울림을 통해 전달한다.



그가 독창회를 가졌던 지난 2월 팜플렛에는 좋은 신앙연주자로서 그의 바람이 담겨 있다.

“한 작품이 태어나기까지
사고와 긴 번뇌의 시간이 응태한 아름다운 시
언어를 소리로 표현하면, 한음 두음 셋 내려간 해산
의 고통 그들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들은 이 축복의 삶을 너무나 쉽게 누리나 봅니다.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들의 감성이 왜 이리도 메말라 버렸는지
아름다움의 기준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자리잡은 소리들의 홍수.

여기에 우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모두 따를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지만
그의 심판에 사랑이 함께 함을 알고
간구 하는 소리입니다

Erbarne dich(자비를 베푸소서)!” **만남**

(취재 : 인미)

양대 명령의 완수



양 지 형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이제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이 열린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개방화, 정보화의 흐름이 급진전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 사회·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통신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글로벌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은 변치 않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변함없으시다. 다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이 사물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며 사람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물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삶의 철학을 느끼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행 5:29)는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

어질 것을 확신한다. 사랑과 내 유익을 위하여 내려다 보시고 나를 계속 알고 계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믿음의 한식구인 영락의 성도는 근면성실하고 창조적 삶을 개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그 사랑은 모든 점에서 나의 가장 약한 것들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잘못을 발견할지라도 내 자신에 환멸한 방식대로 나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축복하려는 그의 결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새 힘을 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사용치 않고 묻어 두어서는 안된다. ‘디지털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배후에 있는 사상은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파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토대가 된다.

미국 유학시절 한 회의에 참여했을 때의 일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토론 내용 중에 80년대 말에 남미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이 내용에 무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특히 미국의 학생들은 남미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 탄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였고 그 내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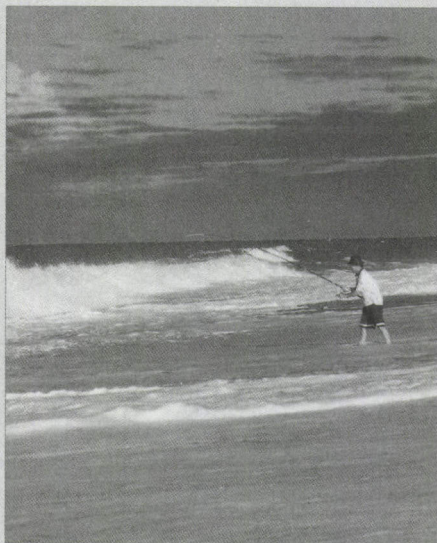
해 적극적인 토론을 나누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미국인의 대다수는 나태한 듯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세계 돌아가는 작은 일 에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다. 그들은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인생이 풍요롭지 못하다. 사회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고난에 처한 사람 을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영락의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큰 일 을 이룩할 수 있다. 깨어서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나서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소망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며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 도를 아는 것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니 엘서 예언장에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혹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견고히 서서 행하리라”(단 11:32)고 말하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 도의 양대 명령을 차분히 실천해야 할 때이다. **안녕**

8월 목회력



- | | |
|---------|---------------|
| 4일(금) | 농산물판매 |
| 13일(주일) | 광복절 기념예배 |
| 20일(주일) | 심방준비회(5부 예배후) |
| 22일(화) | 정기당회 |

복음을 영적지주로 한 ‘말씀의 예술’

- 기독교 문학이야기 (2) -



김 봉 군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문학평론가 가톨릭대 교수)

기독교 문학과 말씀의 복원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작된 문학이며, 반기독교적인 일체의 것들과 선한 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번 이야기에서 알게 되었다.

이 같은 기독교 문학의 본질을 결정하는 상상력의 모태는 물론 신·구약 성서 66권의 ‘말씀’이다. 기독교 문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것은 ‘말씀’의 복원이다. 바벨탑의 붕괴로 인한 언어 소통의 교란과 르네상스적 인본주의가 빚은 언어의 훼손 상태를 창조적 원상으로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문학의 기본 과제다.

은은한 포성과 화약 냄새로 문을 열었던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피로 얼룩졌다. 물질 문명이 펼치는 현란한 향연의 내면에서, 20세기의 정신 문화는 역천적(逆天的) 문명사의 갈피갈피마다 요동치고 신음해 왔다. 누가 뭐래도 20세기의 인류 역사는 비극의 문명사다.

명작 ‘25시’에서 작가 게오르규는 서유럽 사회의 몰락을 선포했다. 그가 기독교 문명을 축으로 한 20세기의 서구 문명에 대하여 이처럼 비판적으로 본 까닭은 이렇다. 지역주의적 개별 국가 형태의 유럽 사회가 참으로 중요한 때에 기독교 질서에 따른 세계 국가적 영적 통일체로 통합되었으나, 중세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없는 타락이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의 역풍을 몰아 왔고, 기독교적 세계 국가 시대인 중세를 ‘암흑 시대’로 불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기독교



는 거듭났으나, 인본주의의 거센 바람은 인간이 자아 중심적 힘의 원리에 의지하여 20세기를 혁명과 전쟁으로 황폐화하도록 만들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의 열풍은 개인의 본능적 자유의 신장과 물질적 소유의 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에만 몰입하는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 '육의 노예' 상태로 추락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결과, 인간의 통일적 정신 질서, 영혼의 파동에 엄청난 교란과 훼손이 빚어졌다. 인간은 마침내 범인류적 공동선의 표준이 될 절대 진리의 일률성(一律性, Einheit)을 잃고, '물질'과 '물리적 힘'에 과도히 의지하면서 반진리의 카오스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근·현대 세속사의 진상이다.

기독교 문학의 지표

기독교 문학의 지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한 1:1)의 그 '말씀' 복원을 위한 응전 곧 '선한 싸움'에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지식·정보화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일체의 존재에 대한 외경심이 소실되었으므로,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것도 그들의 삶과 의식 속에 잔존해 있지 않다. 자연은 물론 인간 기타 모든 존재가 외경의 대상이 아닌 한갓 재료요 이용의 대상으로 전

락했다. 순결과 지조, 섬김의 삶에서 보람과 기쁨과 감사심을 누리는 삶은 가뭇없이 되었다.

기독교 문학은 이 비참한 역천의 인본주의 문화에 응전(應戰)하여 새 문명의 장을 열 선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이 시대 기독교 문학의 정의(定義)는 정적인 본질론에서 역동적인 기능론으로 그 비중이 옮겨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예술을 위한 예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른 이는 문학의 교술성(敎述性)을 배격하고 가치 중립성(Wertfreiheit)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은 '삶을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

요컨대, 기독교 문학은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한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말씀의 예술'이다. 복음 곧 말씀을 정신적, 영적 지주로 한 언어 예술이므로, 타락한 인본주의적 문명사의 흐름 속에서 훼손된 '반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복원시키는 것이 기독교 문학의 지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집단 무의식의 발인 무속 신앙의 운명 결정론, 서유럽 인본주의의 부정적 유산인 진화론과 그에 기반을 둔 자연주의의 유전·환경 결정론, 마르크스주의의 물질 결정론, 프로이트 심리학의 무신론, 정보화 시대의 기술 결정론 등은 선한 싸움의 주요 대상이다. **한글**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교육받은 교회직원들이 달라지렵니다 -



임 세 영 집사
(사무처 총무팀장)

90분씩 8과목 강훈련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0여명의 사무처 직원들이 1차(6월 19~20일)와 2차(6월 26~27일)로 나뉘어 이틀간 90분씩 8과목을 수강하는 강행군을 통해 배운 인사법이다.

교육을 받고 난 후 새로운 인사법으로 인사하자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신선하다”며 격려를 주시는 분들과 “닭살 돋는다. 여기가 무슨 백화점이나?”는 거부감을 표현하는 교우들로 대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는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교우들의 만족과 교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첫걸음이 밝고 활기찬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느니 만큼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응대를 부탁드린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실망했다.’, ‘좀 친절하게 응대할 수 없는가?’

영락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왜 교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던 차에 사랑의교회 수양관 서비스교육원에서 교회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다.



2차 교육받는 직원들

21세기는 서비스 마인드 시대

‘21세기를 위한 서비스 마인드’라는 첫 과목을 수강하던 중 서비스 마인드가 가장 부족한 계층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강사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이 상당 부분 교인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우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철학(목표)이 있어야 하고 ②타인 중심적(他人 中心的)으로 시각을 변화시켜야 하며 ③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계속되는 자기 이미지(Image)확인과 올바른 인사법, 전화예절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도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교우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우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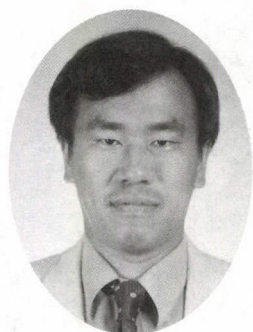
서비스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간 여러 교회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인 인사법이 교우들의 이해와 화답이 없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교우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회 시설을 이용하며, 교회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행정장정 제38조)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교우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무처에 속한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이해의 마음이 부족하여 교우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우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아직은 쑥스럽고 익숙하지 못하여 올바른 인사법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식하여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웃음 띤 화답이 함께 할 때 지금보다 더욱 밝고 건강한 영락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안남**

2박 3일간의 평양



강 민 석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국민일보기자)

자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오고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어떤 순간에도 기자로서 냉철함을 잃어선 안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짐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벅차 오르는 설렘과 흥분, 약간의 긴장이 된 첫 방북. 내게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 수행원들과 기자들을 태운 항공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안착한 것은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공식수행원 일행보다 남과 북을 잇는 “하늘길”을 7분 먼저 열었다.

평양 순환공항 첫 취재의 행운

공항에 도착하자 수행원과 기자들이 항공기에서 내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취재가 뽐뽐하겠구나”하는 생각이 언뜻 머리를 스쳤다. 북한측의 검색을 받은 후 가까스로 10인승의 작은 버스를 타고 환영 행사장에 도착하니 김대중 대통령의 전용기도 이미 안착해 있었다. 그 때서야 평양 순환공항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화(꽃술)를 손에 든 수 만명의 환영인파들, 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의 첫 발을 내딛는 현장을 찍으려 카메라를 대통령 전용기의 문에 핀트를 맞추는 순간, 바로 그때였다. 평양 시민들의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손에 든 조화(꽃술)가 세 차게 흔들리면서 공항은 갑자기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만세, 김정일, 결사 용위 등의 구호가 순식간에 폭풍처럼 거세게 들려왔다. 아직 김대통령이 탑승해 있던 전용기 앞문은 채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전 세계의 신문, 방송에 소개된 역사적인 이 사진을 강민석 홍보출판부 전문위원이 촬영한 것이다.

“어, 뭐지?”

공항 입구 저편에서, 한 150센티 정도 됐을까, 갈색 인민복 차림에 퍼머머리를 한 낮은 사람이 뒷짐을 지고 붉은 카펫 위를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었다. 환영인파의 “김정일”, “만세”, “결사옹위” 소리에 느릿한 박수로 화답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를 보자 공항에 나온 평양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평양의 지하철 승객들

예상 갠 파격 의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80~200밀리 렌즈로 촬영하기에 바빴다. 혹시나 했지만, 정부관계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까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기자로써 정말 행운이구나”



평양 근교에 있는 동명왕릉

는 벽찬 감회도 스치고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붉은 카펫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누구도 곁에 다가서지 않았다. 통상적인 공항 환영행사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의전에 관해 조언하는 이조차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일한 중심이었고, 그가 결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곧 의전이고 격식이며, 관행이 되는 듯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표현했듯이 그는 “오랜 은둔 생활”을 파격의 방식으로 청산하고, 남측 사진 기자에게 처음으로 불과 3미터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7분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트랩앞에서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는 남북정상 ‘55년만의 감격의 악수’ 사진을 찍어 국내 및 전세계 인쇄 매체에 두 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장면을 전달했다. 이 역사적인 사진은 국내의 경우 한국 신문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중앙일간지에서 1면 전체에 광고와 기사도 없이 남북정상의 첫 악수 사진을 게재했다. 김대통령이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사진취재 하면서 “내가 바로 역사 그것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동차를 타고 평양시내로 가면서 또 한번 크게 놀랐다. 우리는 공항의 환영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평양시내에 들어서는 경계점에서부터 양쪽 길에 역시 진달래 등 붉은 조화를 들고 만세를 연호 하는 60여만명의 인파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였다. 곳에 따라서는 길가뿐만 아니라 뒤편 언덕까지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자세히 보니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다니”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그들의 눈물을 보고, 또 진심 어린 표정들을 보고는 동족애가 느껴지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다.

취재원과 북한 안내원

평양 도착 직후 처음 접한 사람은 ‘안내원’ 이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전원에게 각각 1명씩의 북측 안내원이 배정됐으며, 이들은 기자들의 숙소인 고려호텔 외부의 행사 때마다 버스에 동승해 행동을 같이했다.

2박 3일 평양 체류기간 내내 기자를 안내한 리영호(42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담당하는 기자 선생이 장군님을 처음 사진 취재하고, 두 정상의 55년만의 첫 감격의 악수 사진 취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안내원 사이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한 카메라와 렌즈를 통일박물관에 기증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기자실에서 필름 파일 정리상 필요 없는 한 두 컷트를 잘라 버렸는데 다음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북측에서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인데 어떻게 필름의 일부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가 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제기했다. 버린 필름에는 김 위원장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새삼 문화 차이를 실감하며 북측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배려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평양거리, 평양숙소 및 음식

평양 시내 도로에는 적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통 경찰차와 비슷한 '교통단속차'가 거리 곳곳에 눈에 띄었다. 그러나 교차로마다 있는 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며, 대신 우리의 교통 경찰과 비슷한 '교통안내원'이 수신호를 통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시내에는 무궤도 전차인 전기버스와 궤도전차가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손님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평양시민들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는 느낌을 받았다. 평양 주요거리 양쪽에는 20여 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으며, 단독주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숙소인 고려호텔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남측 방문단 환영만찬에서 맛 본 북한 음식은 남한 음식과 달랐다. 남한의 음식이 짜고 맵고 단 자극적인 맛이라면 평양에서 맛 본 북한 음식은 싱거우려 만치 담백하고 원재료의 맛을 내도록 양념한 것이 특징이었다. 음식의 종류도 칠면조 향구이 굴장죽 청취말이 등 남한에서 별로 보지 못한 메뉴가 나왔다. 특히 김치는 남한보다 덜 매운 대신 물이 많아 물김치를 연상케 했다.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옥류관의 평양냉면은 맵고 달콤한 양념으로 맛을 내는 남한 냉면과는 달리 면과 육수 자체로 맛을 내며 담백한 맛을 자랑했다.

기자단이 투숙한 고려호텔은 45층 높이의 2개 동, 500여 객실을 자랑하는 대규모 호텔이었으나 남측 기자단을 포함 보도지원 수행원 등 69명만이 사용했다. 북한이 기존 투숙객들을 다른 곳으

로 옮겼기 때문이다. 객실에는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환영문구와 함께 음료수, 과자, 단물, 맥주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호텔 종업원들은 친절했으며, 남한측 손님들과 가능하면 부딪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평양 인민대학습당, 동명왕릉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몇 군데밖에 못 가봤지만, 인민대학습당은 인상적이었다. 우리식 건축양식으로 된 10층 건물에 "3천만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했으며, 도서관 기능과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 학술 문화기관이었다. 도서 검색이 컴퓨터로 하게 되어 있었다.

평양근교에 있는 동명왕릉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 조상의 무덤을 옮겨온 것으로 일제시대 때 많은 도굴을 당해 고고학자들이 임금무덤인 것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자 김일성 주석이 과학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해석하라고 명령하여 학자들이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무덤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며, 그 안에 남아있는 벽화는 보전을 위해 봉해버려 볼 수 없게 되어있다.

남북정상 회담 평양 취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음의 빛으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사이의 갈등과 미움, 불심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어둠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가 실현되는 진정한 새날이 동터오기를 대망한다. **만남**

주일의 교회식당



진 승 호 집사
(자원봉사지원부 식당팀장)

식당의 일손이 부족하다.

어느날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지원부장이신 이정호 장로님께서 “일손이 부족한 식당에 와서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자원봉사 제2기 교육을 받고 1999년 12월 식당에 배치되었다.

19년전 나는 잘 나가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전혀 생소한 요식업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생소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식당팀에 배치되고 보니, 종래의 구내식당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고, 이로 인해 비능률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되곤 했다. 주일 아침 8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여동안 불과 3백석의 지하1층 식당에서 3천 5백명 이상에게 식사를 계속 공급하다 보니, 먼저 시장터를 방불케하는 혼잡을 정돈해 나가는 일이 쉽지않다. 주방에서 설새없이 음식을 만들어 나르는 한편 식기를 닦아 공급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식사도 거르기 일수이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

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나도 몇시간씩 모자라는 손을 돕고 정리하다보면 어느새 목이 쉬고 저녁이면 몸이 삶아놓은 배추같이 몽크러진다.

어느날은 뜨거운 밥솥을 계속 들어 옮기다가 허리를 빼어 며칠간 고생한적이 있었으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일이기에 보람을 갖고 이 역할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봉사의 과정에서 나의 성급하고 집요한 성격이 자제하고 인내하는 성품으로 바뀌어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식당의 질서를 위해 수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후 부장 장로님과 수시로 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관심을 갖던 중 담임목사님께서 수요일 배 설교에서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식당의 무질서를 지적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 자신도 공감하고 수용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회의 식당이용 면적이 교인 수에 비해 절대 비좁은 현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우리 교우님들께 몇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첫째, 먼저 온 교우께서는 나중에 오실 교우들을 생각해 자리를 안쪽부터 앉음으로 편안함과 여유를 주면 좋겠다.

둘째, 우리교회는 self-service이기 때문에 식사 후 잔반 처리 및 그릇 정리도 차례대로 놓아 주시



50주년기념관 제1식당에서 자원봉사부원들

고, 아울러 타인의 통행을 배려하는 질서 있고 성숙된 교우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주일 하루 식당을 이용하는 교우 중에는 노령 층과 어린이들도 많아 배식 하는 과정이나 식사 전후에도 이들에게 양보해 주는 미덕을 보였으면 한다.

넷째, 빈자리에 가방이나 책을 놓으므로 다른 교우가 이용할 수 없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다섯 째, 배식을 받을 때, 자기 식사량을 말해서 잔밥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요즘 대기업의 구내식당은 “잔밥 없는 날” 또는 잔밥 발생 시 본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회사도 있는데 말하기 귀찮아서 음식을 버리도록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 같다.

끝으로, 이토록 수고하는 식당의 직원과 자원봉

사 요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의 말이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당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

한편, 교회는 주방이나 식당 안에서의 작업 능력과 질서를 위해 기구를 보완하거나 재배치하고, 식사 공간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며 또다른 경험을 얻게 되었고, 특히 나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사랑과 긍정적인 시각에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안남**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4~6)

미국 입양아들과 양부모 일행 본 교회 방문



입양아를 안고 있는 미국인 어머니

미국에 입양아들과 그들의 부모 43명이 한국의 동방사회복지회와 미국 딜론사(Dillon International, Inc. Tulsa, Oklahoma)의 협조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국을 찾아 왔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지난 6월 11일(주일) 본 교회를 방문하여 2부예배에 참석했다.

예배가 끝난 후, 김성웅 목사가 그들에게 환영사를 했고, 또 이재규·박인재 장로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현재 이루어진 시설의 내력을 설명했다. 큰 교회인데도 빈자리 없이 성도들이 가득히 앉아서 예배가 성대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또 웅장한 교회시설을 둘러 보고는 영락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명을 느꼈다.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감상하고 외국인 안내반원들과 간단한 다과를 마치고, 다음 일정에 맞추어 발길을 돌렸다.

류운영 집사(외국인 안내부)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가족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Children's Name: Collin Yearly (9남자) | Sally Schulz |
| Gavin (하늘의 천사됨) | Sara Schulz |
| Lauren (12살,불참) | |
| William (14살,불참) | |
| Parents' Name: James Yearly (불참) | Sue Schulz (양모) |
| Lonna Yearly | Madison Farr |
| <hr/> | |
| Children's Name: Kaylee Renoux (01 경숙) | Glenn Revell |
| Abigail Renoux | Samuel Revell |
| Parents' Name: Clarice Renoux (양 모) | Ron Revell |
| | Sue Revell |
| <hr/> | |
| Children's Name: Turner Paddock (양 현민) | Lee Kenyon |
| Cody Paddock (양 현수) | Vanessa Kenyon |
| Cortney Paddock (권 의석) | |
| Parents' Name: John Paddock | Thomas Kenyon |
| Dee Paddock | Jean Kenyon |
| <hr/> | |
| Children's Name: Sara Keller | Catie Jo Hendrick (김 민혜) |
| Parents' Name: Sandy Keller (양모) | Beverly Hendrick |
| | Sandra Keller (불참) |
| <hr/> | |
| Children's Name: Maria Dorenbecher | Ky Lee Hafen |
| | Nikol Hafen |
| Parents' Name: Harold Dorenbecher | Dave Hafen |
| Mary Heiss | Carolyn Hafen |
| <hr/> | |
| Children's Name: Alexander Dellostritto | David Kang Dernovsek (18살) |
| | Columbia 대학생) |
| | Andrew Dernovsek (16살, 고등학생) |
| Parents' Name: Kathleen Dellostritto (양모) | Kim Dernovsek (양부) |
| | Ken Dernovsek (양모) |
| <hr/> | |
| Children's Name: Melanie Waisanen (정 재희) | Robert Bos (불참) |
| | Candace Bos (불참) |
| Parents' Name: Kay Waisanen (불참) | |
| Douglas Waisanen | Jonathan Bos.(불참) |
| <hr/> | |
| Name: Duk Kyung Um (이단체의 인솔자 | Beverlee Einsig (양모이면서 |
| 이면서 Social Worker at | Director of Educational |
| Dillon International Inc.임) | Services of Dillon International Inc). |

부부 성장 교육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한 남녀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사랑이 넉넉하고 믿음이 가득한지요?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감사를 느낀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정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 표시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도록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부부 성장 교육(Marriage Enrichment)에 귀하의 부부를 초대합니다. 부부 성장 교육은 더욱 행복하게, 어려움이 있는 부부는 서로 화해의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가와 함께 부부관계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 |
|-----|---------------------|
| 1과정 | 만남과 대화의 삶을 사는 부부 |
| 2과정 | 서로의 아픔을 풀어내는 부부 |
| 3과정 |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는 부부 |
| 4과정 | 서로의 성장을 돕는 부부 |
| 5과정 |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사는 부부 |
| 6과정 | 내일의 삶을 계획하는 부부 |

▶ 돕는이 : 상담부 전담목사, 지도 전도사, 부부 성장교육 연구위원 부부 등

◎ 일 정

1. 기 간 : 2000년 8월 13일(일)~ 15일(화) 2박 3일
2. 장 소 : 경기도 이천 생산성 본부 수련원
3. 대 상 : 영락교회 교우 부부 20쌍(부부만 참석합니다)
4. 참 가 비 : 부부 1쌍 - 120,000원
5. 신청기간 : 2000년 7월 30일까지
6. 신청 및 문의 : 상담부 (봉사관 3층) ☎ 2273-6301 교환 195번

영락교회상담부

안내의 글

‘부부성장’에 참가 신청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담부에서는 부부성장모임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성숙된 부부관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석하시는 부부들께서는 아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음의 준비

- 1) 부부성장 모임에 참석하시는 두 분은 이미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더욱 더 성장한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2) 강의 전체가 실습(전체/소그룹)과 대화 나눔(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극적으로 체험하는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3)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간에 오시거나, 먼저 귀가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4) 부부 성장모임 기간 중에는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 걱정이나 두고 온 아이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배우자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귀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열려진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성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의 준비

(부부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합니다)

- 1) 성경, 찬송
- 2) 필기 도구
- 3) 세면 도구
- 4) 침구(덮을 것)
- 5) 간편한 복장(운동화 준비)
- 6) 손전등
- 7) 야외용 작은 비닐 돗자리

◆ 참고 도서

(다음의 도서들을 미리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1) 남편과 아내 시리즈(1~4권) / 헨드리스 편집(화이다온 선교회)
- 2) 행복한 가정을 위한 “왜” 시리즈(1~7권) / 말씀의 집
- 3) 행복한 부부 대화의 열쇠 / 두란노 서원
- 4) 부부 사랑의 십계명 / 고 마태오(카톨릭 출판사)
- 5) 사랑 하나, 행복 하나 / 김 종주(국민일보사)
- 6)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친구사)

◆ 기타

참가자 부부는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한국 생산성본부 연수원(경기도 이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별도 : 안내도 참조)

중국, 북한선교회 기념예배

본 교회 박예성, 이종순 권사 외 20여명이 주관하는 중국, 북한선교회는 7월 1일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우세근 목사 외, 100여명이 모여서 창립 10주년기념예배를 드렸다.

제1부 경건회는 유세중 집사의 인도와 우세근 목사님의 '선교와 성령' (행 13:1~3)이라는 설교 말씀에 이어서 선교 활동보고와 감사장 수여 등이 진행되었다.

선교활동보고에서는 교회건축 9개, 교회구입 5개(한족을 위해 10개, 조선족을 위해 4개), 아파트 구입 2개 등의 활약을 보고 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 줄 교우 가정을 모집 합니다.

영락보린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본원에 거주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정생활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린원 아동을 초대해 2박 3일간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눠줄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명 : 무연고 아동 가정생활 체험프럼

♣ 기 간 : 7월 24 ~ 8월 12일 (2박 3일)

♣ 신청 기간 : 7월 22일까지

♣ 대상아동들 : 미취학, 초등학생

♣ 모집가정수 : 교우 10가정

♣ 자 격 : 본교회 교우 가정, 2박 3일간 보린원 아동을 가정에 초청해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우가정

♣ 상담 및 문의 : 영락보린원 778~8533, 754~6051 담당 : 신동현

영락여자신학교에 장학금 기탁

지난 5월 남한산성 영락여자신학교에서 열린 영락여자신학교 후원회에서 본 교회 김철우 장로가 고인이 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여교역자 인재양성에 써달라고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성경 통독사경회

할렐루야!

2000년 여름 성경 통독사경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성경의 맥을 잡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 일 시 : 8월 7일(월) 오전 8시 30분 ~ 8월 11일(금) 저녁 8시까지
- ♣ 장 소 :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지하예배실
- ♣ 등 록 비 : 50,000원
- ♣ 강 사 : 이만용 목사
- ♣ 등록장소 : (1) 사무처 (봉사관 1층)
(2) 자원봉사지원부실 (봉사관 2층, 구내전화 241번)
(3) 자원봉사 안내실 (봉사관 1층 로비, 구내전화 194번)
- ♣ 등록기간 : 7월 16일 ~ 8월 3일 (※ 교회사정상 선착순 500명만 받습니다.)

승진교회 헌당



지난 6월 오후 2시 육군 제8305부대 영내 승진교회가 헌당예배를 드렸다. 영락교회 소단체 드보라회가 지난 3월부터 후원하여 건평 50평 단층 조립식건물로 최전방 장병 150여명이 예배드릴수 있는 아담한 교회를 신축했으며, 연대장 대대장과 군선교연합회 문은식 사무총장 영락교회 선교부 및 드보라회 등 200여명이 헌당예배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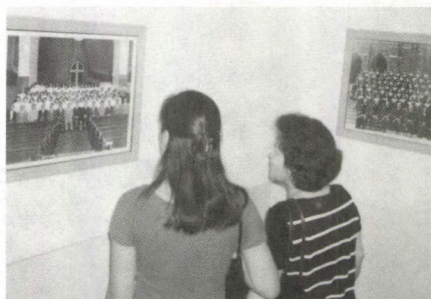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 기독교학생 연합회 제7회 수련회

- ♣ 일 시 : 8월 16일 ~ 19일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60-1
갈보리교회(0342-709-9036)
- ♣ 주 제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150:6)
- ♣ 예상인원 : ①시각장애학생 120명 ②안내봉사자 60명
③진행팀 및 찬양단 20명
- ♣ 봉사자모임 :
8월14일 오전 11시 갈보리 교회 갈릴리 성전
8월16일 오후 12시 갈보리 교회 갈릴리 성전
- ♣ 회 비 : 2만원(1인)
- ♣ 연 락 처 : 이상천 전도사(597-9033), 대학부 맹학교 팀장 김은철(018-246-9084)



음악부 사진전시

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성가대 발자취를 담은 성가대 사진이 교육관 복도에 전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락교회 초기부터 시작한 성가대 사진을 모아 성가대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광순 장로 올해의 동문상 받다.



이광순 장로가 6월 8일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세계선교대학원(the School of World mission)으로부터 2000년 올해의 동문상(the Alumna of the year for 2000)을 수상했다.

이 장로는 세계선교대학원장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사 훈련과 세계복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누리게 됐다.

정득만 장로 1주기 추모예배

6월 29일 오후 5시 정득만 장로 추모 1주기에배를 드렸다. 베트남 선교협회 한국예비역 기독교 장로회 주관으로 드린 이 예배에는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내외빈 450여명이 참석했다.

말씀은 '후대에 남긴 유업' (히 13:6~8)으로 오창학 목사님이 전했고, 이재전 장군과 이재규 장로의 추모사에 이어 10분간의 비디오 상영도 있었다.

부인 김옥희 권사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교역자 축구팀 친선경기



현승학 목사가 영락고 교사팀 골대를 향해 강력한 슛팅을 하고 있다.

매일 심방과 말씀 준비로 바쁜 교역자팀들이 6월 22일 영락고등학교 교사들과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다.

김창준 전도사와 현승학 목사는 올해 처음 열린 축구경기에서 각각 1골씩 기록했다. 그러나 아깝게도 영락고등학교 교사팀에게 4대 2로 패했다. 영락고 교사팀은 최근 서울시 고등학교 교사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강력한 팀이다.

이번 경기에서 패한 교역자 팀은 김범식, 오철훈 목사의 공격력을 중심으로 실력을 다져 다음번에는 필승을 다짐했다.

영탁 믿음의 가정상 시상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3대 이상 믿는 가정과 믿음의 부모, 그리고 효행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 등 믿음의 가정을 대상으로 5월 20일까지 교구 교역자에게 추천한 가정 수는 총 49가정으로 입상자는 5가정이며, 추천대상자는 44가정이었다. 5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시 영탁 믿음의 가정 시상식이 있었다.

◎ 입상자 명단

| | | |
|--------|--------------|-------------|
| 오영자 권사 | 안양교구 52구역 | 믿음의 가정 부문 |
| 김진수 권사 | 안양교구 42구역 | 믿음의 가정 부문 |
| 고상규 집사 | 서초교구 55구역 | 믿음의 부모 부문 |
| 변정숙 집사 | 은평교구 9구역 | 믿음의 효부 부문 |
| 이하원 학생 | 마포영등포교구 33구역 | 믿음의 효행자녀 부문 |

역사의 순례 (198)



해마다 이맘때면 여름수련회의 기다림이 있다.

1962년 여름, 수유리 기도원 넓은 공터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는 광경.

꼬마 솔리스트의 당당한 모습에서 영락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리아 올르간 연주자는 김수경 권사이며, 그 뒤에 안경끈 분이 문병옥 권사다.

지금쯤 40대 중반이 된 노래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머니의 고향」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
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이 정 수 집사